



WBC 대표팀 2차 명단 26일 발표

“포수가 문제다”

‘베테랑’ 박경완·진갑용 대표팀 합류 여부 불투명

노련한 베테랑 조잡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야구 대표팀의 최대 과제로 등장했다.

26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와 WBC 코칭스태프는 WBC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 2차 명단을 발표한다.

WBC 코치진은 이날 예초 28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출장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많아 예비 멤버를 늘려 31~32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주역들이 이번 대표팀에서도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수와 포수의 배터리 구성이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라운드를 진두지휘할 안방바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포수 구성이 만만치 않다. 지난 1일 발표된 예비 엔트리에 이를

을 올린 포수는 롯데 강민호(23)·삼성 진갑용(34)·SK 박경완(36)·LG 조인성(33) 등 4명이다.

KBO 기술위원회 관계자는 24일 “26일 오전 WBC 코치진끼리 만나 멤버를 사전 조율하겠지만 포수 구성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18년차 베테랑 박경완은 국내 최고의 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투수 포지션에서도 경험 많은 선수들이 부족하다. WBC 대표팀의 한 코치는 “1~2명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지난 1일 발표된 1차 명단(45명)에서 빠진 투수 중에서 후보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나홀로 26득점’ 마리안 “현대건설 미안” 2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KT&G-현대건설 경기에서 KT&G 마리안이 현대건설의 블로킹 위로 강타를 때리고 있다. KT&G가 3-0으로 승리했다.

“우즈 공백 이득 볼 선수는 앤서니 김”

AP통신 보도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사진)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공백으로 많은 이득을 볼 주요 선수라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AP통신 특 퍼거슨 골프기자는 “우즈의 공백으로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즈가 빠진 기회를 살릴 수 있을만한 선수 5명을 꼽았다.

또 “앤서니 김은 모든 조건을 갖춘 훌륭한 선수”라는 우즈의 평도 덧붙였다. AP통신은 해링턴과 앤서니 김 외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 부 위클리(미국)까지 5명을 우즈의 부상 공백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로 평가했다.

AP는 또 “45세의 비제이 싱은 우즈의 라이벌보다는 우즈 시대에 두 번째 정도로 잘했던 선수로 기억될 것이다. 빌 미켈슨, 애덤 스콧, 조프 오길비, 에니 엘스 등도 우즈가 빠진 이후 우승은 한 번밖에 못 했다. 미켈슨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최근 우즈 캐디 관련 해프닝 때가 유일할 정도”라며 “이제 우즈 라이벌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이들 5명으로 대화의 중심이 옮겨졌다”라고 주장했다.

퍼거슨 기자는 “자신의 공백으로 가장



이득을 볼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우즈는 “젊은 선수들인 앤서니 김과 비에가스, 가르시아”라고 답했다”라며 “그들은 자신의 케도에 올랐다.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우즈의 평을 소개했다. 그는 또 “우즈가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도 이들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KBO 총재 ‘박종용 카드’ 어떻게 돼가나?

YS 부탁...야구계 반발로 주춤

한국야구위원회(KBO) 차기 총재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종용 전 의원을 앉히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야구계의 반발로 주춤한 상태로 24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이 부탁한 사람이 딱 두명인데 그 중 한명이 차남인 현철씨고 다른 사람이 박 전 의원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여권이 박 전 의원을 KBO 총재로 앉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의원 추대 요청은 청와대 핵심에게 전달됐으나 최종적인 결론이 어땠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야구위원회의 한 내부 인사는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총재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박 전 의원이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락하는 데 부

담을 느꼈다고 한다. 청와대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주변을 통해 알아본 결과 총재직이 임금이 꽤 많은 자리인데다 박 전 의원이 걸려 있어 여러 내부의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야구위원회는 당초부터 박 전 의원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직 의원도, 정권 실세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등의 이미지상 문제가 있어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들어 태권도협회에 흥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배구협회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러 실세들이 입성한 데 비해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총재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일각에선 일단 냉각기를 가진 뒤 박 전 의원 추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PGA 가을시리즈 6개 대회

올보다 1개 대회 줄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가을시리즈가 올해 7개 대회에서 2009년에는 6개 대회로 줄어들게 됐다.

24일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을시리즈 대회 가운데 긴쉬메르 클래식 이 미국 부동산 위기 여파로 열리지 않게 됐고 이미 정규 시즌 대회로 편

입된 발레로 텍사스오픈이 빠지면서 2개 대회가 줄어들었다. 반면 11월 첫 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대회가 신설될 예정이라 2009시즌 가을시리즈는 6개 대회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가을시리즈는 정규 대회와 플레이오프가 끝난 뒤 다음 시즌 출전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하위권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는 대회다.



도로공사(15:40-KBS N SPORTS) ▲08/09 프로농구(LG:KCC)(14:45-XSPORTS), <SK:KT&G>(14:50-SBS 스포츠), <동부:오리온스>(15:00-MBC ESPN) ▲08/09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KB국민은행)(16:50-SBS 스포츠)

Advertisement for 'Yeomjudoong Hospital' (염주동 병원임대) featuring 2, 3, and 4 floors, 45 pyeong each, near Yeomju University and Yeomju Sports Complex. Includes a map and contact info: HP: 011-608-2208.

Advertisement for 'Daesung Gongin Jeonggasa' (대승공인중개사) for 'Suwon Jigu' (수원지구) apartment sales and rentals. Contact: 062)954-7700, 010-9468-7959.

Advertisement for 'Jeongheon Jeonggasa' (正心 正視 正行) real estate agency. Contact: 062)431-2834, (H.P) 010-6460-2834.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Advertisement for 'Sangwul Gongin Jeonggasa' (상우랜드공인중개사) for real estate services. Contact: (FAX)383-5221, 011-608-5221.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Budeongsan' (대인동삼일부동산) for real estate services. Contact: (F)223-1140, 5210-011-802-2532.